



'Bon Voyage'

사진·영상·설치로 표현한 '중간지대'

비장소 공간들의 재해석·확장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박세희 초대전 'Bon Voyage'

2016년 제18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박세희 작가의 초대 개인전이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박 작가는 '비장소(non-places)'와 '중간지대'를 주제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을 사진, 영상, 설치 등의 다양한 작품들로 표현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비장소'는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가 현대사회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인류학적 장소'와 대비되는 장소성을 규정짓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장소'가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머물며 형성되는 관계성과 역사성을 갖는 곳이라면, '비장소'는 잠시 거쳐 지나가는 환승의 장소이자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을 말한다. 사람들이 정착하고 전유하고 서로 교류하는 곳이 장소라면, 비장소는 통과하고 소비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곳이다.

마르크 오제는 고속도로, 공항, 기차역과 같은 교통수단의 대기장소 또는 대형 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간 관계의 부재를 특성으로 지닌 장소들을 '비장소'라 부를 것을 제안했다.

작가는 이러한 비장소를 촬영, 연출함으로써 그 공간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확장한다.

또 그와 반대로 걸음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빈집을 촬영해 '인류학적 장소'와 '비장소'의 의미가 뒤집힌 모습을 담는다. 전통적인 장소의 요건인 관계성, 역사성, 정체성을 갖지 못한 '공간'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각 도시간 또는 국가간의 이동이 잦았던 작가는 오고 가는 이동의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어느 한 곳에 명확하게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에서 바라본 외부 혹은 내부의 모습을 사진에 은유적으로 담아낸다.

블라인드나 커튼, 담장 너머 보일 듯 말

듯한 공간을 표현한 '중간지대'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외부와 접촉하고 소통해야 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담고 있다.

지난 미술제 심사평에서 박 작가는 "풍경을 매개로 그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작업의 노정을 연출사진에서 출발, 비디오 작업으로 확장해 가장 동시대적인 실험을 감행하는 작가"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작가는 조선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런던 UAL 캄버웰에서 순수예술 석사학위와 국민대학교 입체미술 과정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총 8회의 개인전, 50여 회의 단체전과 2018년, 2014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다.

/이연수 기자

'중국 자주요 도자 명품전' 연계 강연회

오늘 김영원 전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20일 오후 2시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대강당에서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 '중국 자주요 도자 명품전-흑백의 향연' 연계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 5월 28일부터 세계 도자문화 특별전의 첫 번째 전시로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한단시(邯鄲市)에 위치한 중국 북방 최대의 민간 가마인 자주요(磁州窯)의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강연회는 관람객들에게 '자주요 도자 명품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김영원 전 국립전주박물관 관장이 강사로 나선다. 김 전 관장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해 저명한 도자사 연구자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강연회 주제는 '중국 도자의 역사와 자주요'로 중국 도자기의 8,0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중국 도자사 안에서 자주요 도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본다.



국립광주박물관 관계자는 "중국 도자의 긴 역사 속에서 자주요가 갖는 위상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중국 자주요 도자 명품전'은 오는 8월 18일까지 이어지며, 관람과 강연은 모두 무료이다. /이보람 기자

'문화재지킴이 날' 첫 기념식

오는 22일 오전 정읍 내장사 야외 특설무대

'문화재지킴이 날' 기념행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정읍 내장사 내장사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조상열, 약칭 한지연)은 이날 정관계 인사들 비롯 전국 지킴이 회원 등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첫 번째 '문화재지킴이 날' 기념식을 갖는다.

행사는 문화재청과 한지연이 공동주최하고 정읍시와 내장사, 정읍문화원,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등이 공동 후원한다. 주요행사로 는 실록 이안 재현 연극, 축하 공연, 문화재지킴이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이 있을 예정이며, 조상열 한지연 회장의 대화사, 유진섭 정읍시장의 축사에 이어 김형호 문화재청 차장, 유성엽 국회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6월, '문화재지킴이 날'을 제정 선포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기념식이어서 의미가 크다.

한지연이 '문화재지킴이 날'을 6월 22일로 제정하고, 첫 번째 기념식 장소를 정읍 내장사로 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으로 성주사고,

충주사고, 춘추관 등에 보존해 왔던 조선 왕조실록이 20여일 만에 전소되고 만다. 다행히 전주사고본은 무사했으나, 그것마저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6월 22일 당시 정읍의 유생이었던 안의, 손흥록과 내장사 주지 희묵대사를 비롯 정읍의 민초들이 실록을 지켜내고자 전주사고로 달려가 태조 어진과 왕조실록 64권을 내장산 용굴암 등으로 옮긴 후 1년이 넘도록 지켜낸 기록이 있다.

지난해 6월, 문화재청과 한지연은 민간 참여의 역사성과 문화재지킴이의 훌륭한 정신을 본받아 온 국민이 문화재의 가치를 바로 알고 문화재를 지켜가는 참여형 운동으로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임란 중 실록을 이안(移安)한 6월 22일을 '문화재지킴이 날'로 제정해 선포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실록을 전주사고에서 용굴암으로 옮기는 모습을 재현하는 연극을 극단 청춘이 제작해 첫 선을 보이고, 용굴암 등 유적지도 답사할 계획이다.

행사 참여자는 내장산 공원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우천시에는 정읍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문의 042-489-8850. /이연수 기자

아시아 현대미술 흐름과 동향

무등현대미술관 국제교류전 '제4의 예술전'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승규)은 국내·외 3명의 큐레이터와 6명의 작가가 함께 기획한 국제교류전 '제4의 예술전'을 7월 5일까지 개최한다.

아시아의 현대미술 흐름과 동향을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다.

인간이 가진 독특한 '감성'과 '영감'에 기초한 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아시아의 작가들과 큐레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변화를 수용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최대화해 새로운 아시아 예술의 가치를 재적립한다는 목적이다.

전시를 기획한 김병현(독립큐레이터), 김태선(무등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지아정(ART 갤러리 대표)은 각각 다른 제 4차 산업혁명의 진보와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6명의 작가와 함께 특별한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방신삼, 장원, 쟁짜오만, 폐기첸, 이이남, 이조흠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시에 참여한 아시아 작가와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사회의 기술과 문화, 문명의 융복합에 대한 담론을 펼친 '인공지능(AI) 사회의 예술: 아시아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연수 기자



쟁짜오만 작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 |
|---------------------------|---------------------------|
| ■ 동구 | ■ 북구 |
| 중앙 223-2378 010-3635-1195 | 운암 525-3761 010-6886-3761 |
| 총장 233-4123 010-7755-8824 | 양산 574-3745 010-2646-3205 |
|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오치 261-9461 010-3629-0146 |
| ■ 서구 | 문흥 261-9462 010-7601-4480 |
| 광천 374-2126 010-9602-2565 | 일곡 573-3200 010-9273-0105 |
| 쌍촌 372-6659 010-6636-2775 | 두암 264-7074 010-2684-6091 |
| 화정 381-2156 010-4235-0902 | 중흥 433-1503 010-4601-2080 |
| 상무 372-7625 010-5013-3889 | 북부 222-2524 010-2656-4543 |
| 풍암 681-3179 010-6634-5084 | ■ 광산구 |
| ■ 남구 | 첨단 971-7374 010-3613-2312 |
| 봉선 653-1920 010-9474-0212 | 신가 952-4864 010-3648-2549 |
| 진월 653-6900 010-5662-7449 | 월곡 952-1687 010-3612-1687 |
| 월산 010-8245-1625 | 우산 951-9954 010-5018-0024 |
| 남부 651-1833 010-2943-8016 | 수완 959-1414 010-3101-2526 |
| 송하 010-8620-1925 | 송정 941-7070 010-3976-0123 |
| | 혁신 010-4623-9622 |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 | | |
|---------------------|--------------------|--------------------|
| 광산지사 010-3601-1102 | 담양지사 010-4154-8277 | 영암지사 010-4624-8409 |
| 목포(갑) 010-3272-2765 | 곡성지사 010-6764-6100 | 무안지사 010-3621-8989 |
| 목포(을) 010-3635-6777 | 구례지사 010-5431-4006 | 함평지사 010-3773-2522 |
| 목포(병) 010-9359-1648 | 고흥지사 010-9151-2828 | 영광지사 010-8666-2882 |
| 여수지사 010-8648-1236 | 보성지사 010-5259-6441 | 장성지사 010-3666-1300 |
| 순천지사 010-2547-7890 | 화순지사 010-3666-5888 | 완도지사 010-5619-7020 |
| 나주(갑) 010-6401-9370 | 장흥지사 010-3613-6114 | 진도지사 010-3624-4777 |
| 나주(을) 010-3713-7458 | 강진지사 010-6646-1241 | 신안지사 010-4627-1472 |
| 광양지사 010-2630-1628 | 해남지사 010-8181-2627 | |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jndn@chol.com 관리국: jsm7139@nate.com 월간국: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peace20090818@hanmail.net